

# Interview



## 〈백야행〉 박신우 감독

“운이 아니라 동영상 콘티 덕을 톡톡히 봤다”

**장편 데뷔작을 내놓았는데, 소감이 어떤가?** 아직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된다. 너무 긴장해서 오히려 답답하다. 첫 주 개봉 스코어가 나오면 그때서야 실감나지 않을까 싶다. (웃음)

**원작의 유명세, 스타 배우들의 출연, 제작비 규모 등 신인 감독의 데뷔작 치고는 거의 완벽한 세팅이었다.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나?** 원작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컸던 것 같다. 그 외에 세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는 생각뿐이다. 원작을 살리는 시나리오 작업에 공을 들였고, 이를 기반으로 최상의 캐스팅을 마무리했다. 신인 감독의 데뷔작 치고 캐스팅이 너무 화려해 오히려 투자 받기 어려웠을 정도다. 저렇게 어린 신인 감독이 화려한 경력의 배우들을 데리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많이 받았다. 너무 다행스럽게 강우석 감독님은 나이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를 믿어주셨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은 감독으로서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요소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원작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원작에서 느꼈던 작품의

원작과 달리 동수 캐릭터를 좀더 부각시켰다. 동수라는 인물을 통해 요한과 미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픈 상처를 되짚고 싶었다. 두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해해 가는 동수 캐릭터가 없었다면, 〈백야행〉의 남녀 주인공은 그저 사이코 살인마 커플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매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 내가 생각하는 원작의 매력은 캐릭터다. 영화도 플롯 중심으로 가기도 캐릭터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여기에 나만의 컬러를 덧붙이기 위해 고민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동수다. 영화에선 드라마나 원작과 다르게 동수 캐릭터가 좀더 부각된다. 동수라는 인물을 통해 요한과 미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아픈 기억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었다. 두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해해 가는 동수 캐릭터가 없다면, 〈백야행〉의 두 남녀 주인공은 사이코 살인마 커플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동수라는 인물을 통해 운명에 얽힌 두 사람의 실타래를 풀어가려 했다.

**수십 번 수정을 거친 시나리오가 일어로 번역되어 원작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작자의 반응은 어땠나?**

히가시노 게이고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간략한 요지는 영화화하기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라는 평가였다. 캐스팅도 투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코멘트라서 그 말이 내겐 엄청난 큰 힘이 됐다. 이번 한국 개봉 때 꼭 모시려 했는데, 워낙 글 작업이 많은 분이라 스케줄이 나지 않아 모시지 못했

다. 원작자가 어떻게 내 영화를 봐줄지 궁금하다.

**배우들의 대사나 지문, 행동이 완벽하게 그려진 것을 애니메이션화한 동영상 콘티인, '애니메틱스 동영상 콘티'가 화제다.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게 됐나?** 장편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인이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다. 러닝타임이 꽤 긴 영화라서 촬영에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 만들었다. 신인 감독으로서 장편의 호흡이 어떤 것인지 컨트롤 해 보는 예행연습 같은 것이다.

**콘티 메이킹을 전부 혼자 작업했나?** 전체 총괄 연출은 혼자 했지만, 각 부분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들은 있었다. 이를테면 콘티 그리는 것을 담당하는 분, 몇몇의 주요 촬영장면의 경우 2D를 3D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CG 관련 오퍼레이터, 그리고 각 배우들의 대사를 녹음한 신인 배우들 등이다. 또 그 대사 연기를 녹음 믹싱하는 오퍼레이터도 있었고, 음악 감독님에게 영화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선곡 받아 동영상 콘티에 삽입했다. 영화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만든 콘티다. 완성된 영상 콘티의 러닝타임은 2시간 6분이었다.

실제 영화 러닝타임과는 5분 정도 오차가 있다. 아마도 감정 신이나 배우 이동 동선에서 약간의 계산 착오로 차이가 난 것 같다.

**3D로 작업한 콘티 장면은 어떤 신인가?** 영화 중간 미호와 재벌 총수 약혼남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차가 전복되는 신이다. 이 신의 경우 촬영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3D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실제 촬영에 대비했다.

**동영상 콘티를 만드는 데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 한달 정도 걸렸다.

**동영상 콘티 덕에 투자자를 성공적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들었다. 어떤 반응이었나?** 투자사에서 매우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내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됐다. 배우들에게는 아예 CD로 구워 직접 보라고 전달했다. 물론 투자사 미팅과 마찬가지로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의 부분까지, 컷 바이 컷으로 모두 설명했다. 동영상 콘티 작업을 한 영화들이 없진 않았지만, 전부 부분적인 작업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전쟁영화라든지, 위험한 액션영화들의 경우 촬영 전 부분 동영상 콘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동영상 콘티로 만든 작품은 <백야행>이 처음이다.

**한석규 씨의 경우 초반 캐스팅 수락을 거절했는데 자필로 쓴 장문의 편지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미팅 기회를 얻어 캐스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들었다. 편지에 어떤 이야기를 썼나?** 내용보다는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왜 선배님이 한동수 역할을 맡으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꼭 봐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사실 한석규 선배님이 그 편지로 바로 캐스팅을 수락했던 것은 아니다. 편지에 감동해 거절을 하더라도 만나서 거절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런 반면 나는 만나지는 말씀 한마디를 캐스팅 허락으로 알아듣고 신이 난 상태였다. 웬걸, 한 선배님이 만나자마자 내게 한 말은 “이번은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였다. 그리고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 영화는 동수의 비중을 키우기보다 요한과 미호의 멜로 라인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영화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 동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속 동수가 무게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야기 전체의 중심이 모두 흐트러져 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결국 공감하였고, 미팅 10일 후에 캐스팅 수락 연락을 받았다.

**네티즌 평은 많이 읽어 봤나?** 읽어봤다. 평이 너무 극단적이더라. 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원작만 본 사람들은 영화가 실패라고 하고, 드라마만 본 사람들은 감정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오히려 두 가지를 다 보신 분들은 영화가 나름의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평가한다.

**소설에서 문학적으로 전달된 주인공의 내면 상황을 배우의 대사로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연출부터 편집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다. 그런 대사를 아예 빼볼까도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영화가 원작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그런 문학적 대사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원작에서 묘사된 태양의 이미지는 너무 중요한 메타포여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 또 영화 속 요한과 미호는 그들의 속내를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상징적 대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속마음을 관객에게 표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배우들이 그 장면의 감성을 잘 살려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좀더 안전하게 일본 드라마처럼 내레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내레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영화는 동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내레이션을 쓴다면 동수의 것이어야지 미호와 요한의 내레이션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미호와 요한의 내레이션이 나오면, 그건 이야기 전체의 시점을 다 흐트러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영화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찍어야겠다**

**히가시노 게이고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간략한 요지는 영화화하기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라는 평가였다. 캐스팅도 투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코멘트라서 그 말이 내겐 엄청나게 큰 힘이 됐다.**

**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영화학 개론을 듣다가 영화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과 공부는 뒷전이었고 혼자 영화책을 보면서 독학했다. 그러다가 혼자 공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체감하고, 정식으로 한겨레 시나리오작가학교에서 처음으로 장편 시나리오 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겨레 영화제작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때 만들었던 단편 <금붕어>로 부산국제영화제 선제편드상을 받아 그 작품으로 영상원 전문사 과정에 합격하게 됐다. 또 그때 받은 상금으로 <미년자 관람볼가>를 연출하게 됐는데, 운 좋게도 미장센 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운이 참 좋았다.

**<백야행> 연출은 어떻게 맡게 된 것인가?** 프로듀싱을 담당한 임지영 PD님과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 준비하고 있던 두 작품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있던 중 싸이더스FNH에 놀러갔다. 같은 날 임 PD님도 다른 일로 싸이더스FNH에 오셨는데 마침 미팅하기로 한 다른 PD님이 일이 생기는 바람에 30분 정도 시간이 떠서 기획실에 놀러왔더라. 그러다가 서로 만나게 됐다. <백야행>은 정말 인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영화다. 하필 그 순간 네이버에 내가 찍은 단편이 상영되고 있던 차였는데, 기획실 분이 임 PD님에게 내가 만든 영화를 보라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그 작품이 과거 영상원 졸업전에서 임 PD님이 봤던 작품이라고 하더라. 당시 그 작품을 보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셨던 모양이다. “그때 그 감독이 당신이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 PD님과 내가 그 시간, 그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게 낮을 텐데, 그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봐도 거짓말 같은 인연이다. (웃음)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차기작으로 어떤 영화를 연출해 보고 싶은가?** <백야행>이 감정선도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절제된 영화다 보니 차기작은 이와는 반대로 좀 심플하고 배우들도 감정을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일종의 반작용이 생긴 것 같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향을 봤을 때 결국 좀 어두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차기작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작이 될지 모르지만, 소년 범죄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단편 <미성년자 관람볼가>와 연결되는 작품이 될 것 같다.

김수연 기자 | 사진 이수진